

# OO시민들과 함께하는 'OO시원어민영어교실'

온라인으로도 즐겁게! 알차게!

교육일정: 2022년 4월 25일~12월 23일



글로벌교육사업본부  
정혜수(Rosie) 매니저

교육과정의 기본 사항을 소개한다면...

OO시 원어민 영어교실은 OO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원어민 영어학습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과정이 열리지 않았던 한 해를 제외하고는 캐럿글로벌과 4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ZOOM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OO시의 총 43개 동과 협력하여 약 1200명의 시민들에게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차수 기준 총 127개 클래스가 개설되었고, '성인반'과 '초등반'으로 나뉩니다. OO시 원어민 영어교실의 가장 큰 특징은, 한 클래스에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보조 선생님이 각각 한 분씩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인 보조 선생님은 원어민 선생님의 말을 통역해 주시기도 하고, 모든 학습자들이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따라서 100% 영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을 부담스러워하시거나 영어에 자신이 없는 학습자들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교육 중에 기억에 남는 학습자나 관련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매달 학습자들에게 이메일로 Monthly E.V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Monthly E.V는 각 반 원어민 선생님들이 직접 작성해주는 내용으로, 한 달 동안 어떤 내용을 배웠고, 학습자들의 영어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등이 적혀 있습니다. 매달 약 1200명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는데요, 저번 달에 처음으로 한 학습자분께 메일 회신을 받았습니. 해당 학습자분은 본인 사정 때문에 과정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과하셨는데, 원어민 선생님을 비롯하여 한국인 보조 선생님 그리고 전체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캐럿글로벌 매니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



수강신청 진행, 공지사항 확인 등 OO시 원어민 영어교실과 관련된 내용들을 안내하는 전용 사이트

다는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학습자분께서 직접 메일로 감사를 표하신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선생님과 운영진 모두 뿌듯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위 질문에서도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수업이 유익했다”, “수업을 잘 듣고 있다” 등 시민들의 소소한 칭찬 및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올해 첫 1분기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학습자들의 수많은 문의가 있었는데, 대부분 올해 00시 원어민 영어교실의 첫 시작을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이셨습니다. “작년에 수강했었는데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만족해서 올해도 들을 예정이다”, “우리 가족은 매년 이 과정만 듣는다”, “올해도 좋은 과정 부탁 드린다” 등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00시 원어민 영어교실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분들이 기다려주신 만큼 보답하기 위해 저희 매니저들 모두 열심히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가장 좋은 영어학습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시민분들이 저희에게 그리고 강사님들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개인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가장 좋은 영어학습 방법은 '발화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시 원어민 영어교실을 수강 중인 시민분들 중 간혹 이런 문의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수업 시간엔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자습할 수 있는 mp3 파일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실시간 화상수업은 강사님이 계속 말을 시켜서 부담스러워요, 인터넷 강의로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물론 혼자 mp3 파일이나 인터넷 강의로 자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본인이 실제로 말을 하지 않으면 학습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담스럽고 부끄럽더라도 최대한 스스로 문장을 만들고 원어민 강사님과 대화를 이어나가려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실력이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항상 모든 00 시민분들께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려 노력하지만, 가끔씩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미리 안내해 주셔



성인반 수업 모습, 강사님이 실시간으로 문장을 타이핑하며 강의중

초등반 수업 모습, e-book으로 배우는 인사말

초등반 수업 모습, 게임과 함께 진행되는 표현 학습

서 감사합니다” 등 따뜻한 답변을 들을 때마다 큰 힘을 얻곤 합니다. 오랜 기간 00시 원어민 영어교실을 아껴주시는 학습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